NCC 자율적 감산 완전“ 왜곡"

감산계획의 자구적 실행아닌 지나친 가동 따른 사고

NCC업계의 최근 감산움직임이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사고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연초에 합의한 폴리올레핀 감산실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고는 가동률을 더욱 높이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폴리머 인상요인으로 알려진 NCC기업의 자체 감산문제가 상당부분 왜곡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범용수지를 비롯한 일부제품은 공급이 내수 품귀 현상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연초 감산계획 실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졌으나, NCC기업의 최근 움직임은 지나친 가동으로 인한 라인 사고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공은 연산 40만톤규모의 울산단지 NEP공장을 당초 계획에 따라 정기보수가 끝난 5월23일 재가동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30일에야 비로소 운전에 들어가는 등 라인 결함으로 인한 START-UP기간이 일주일 이상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종합화학은 지난달 NCC라인 이상으로 HDPE · LDPE · PP 등 계열공장과 함께 6월2일부터 10일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정기보수를 하지 않겠다던 94년 계획이 예상밖의 사고로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도 5월 15만톤 규모의 HDPE공장 사고로 한달여의 기자재 보수 기간동안 공장가동을 완전 중단했고, 럭키석유화학도 120% 정도의 지나친 가동에 따른 콤퓨레셔 고장으로 5월7일부터 3일간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양화학도 같은 이유로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정기보수 이후 뜻하지 않는 가동중단 사태를 맞았었다.
이밖에 동양나이론은 기계결함으로 프로필렌 공장 가동을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무려 20여일동안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PP공장도 5월18일부터 25일까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유분과 유도품의 공급부족 현상이 이처럼 심화되자 호남석유화학은 6월부터 연산 40만톤규모 에틸렌 생산시설의 히터 1개의 가동을 중단, 10%정도 감산을 계획했으나 풀가동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잇따른 NCC공장 사고로 기초유분의 공급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전체 폴리머쪽의 내수 품귀현상도 더욱 표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더욱이 이같은 국내 공급부족 현상은 수급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기업들이 내수가격보다 60~70달러 높은 국제시장을 겨냥, 전략적 수출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6/27>